

‘1인 가구’ 절반 미혼 “결혼할 돈 없어서”



▲ 1인 가구의 절반은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해 한국 전체 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는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결혼자금 부족하거나 고용불안 등 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1인 가구의 19.8%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18.1%), 30대(17.1%), 60대(16.4%) 순이었다.

1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은 2,691만원(2021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연소득(6,414만원)의 42% 수준에 그쳤다. 1,000만원을 벌지 못하는 1인 가구 비중도 21%에 달했다.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은 다가구단독주택 등 단독주택 거주 비중(42.2%)이 가장 높았다. 아파트는 33.1%, 연립·다세대 11.5%, 주택 이외 거주 11.3% 등이었다. 1인 가구 대부분은 월세(42.3%)로 살았고, 자기집(34.3%)과 전세(17.5%) 비중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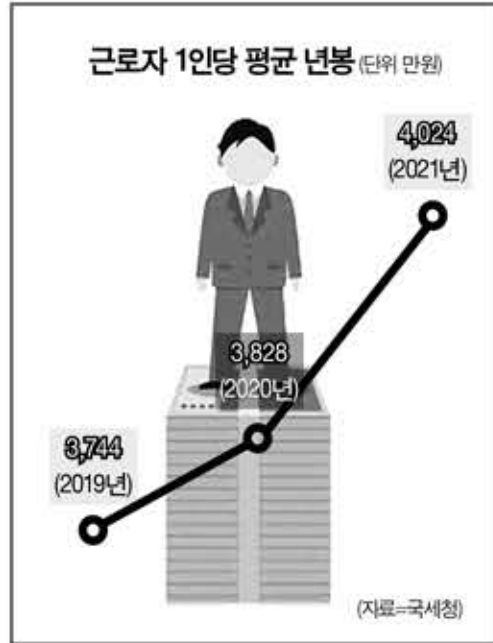
1인 가구 가운데 절반(50.3%)·2020년 기준은 미혼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30.8%), 직업 없거나 고용상태 불안정(14.4%), 출산·양육 부담(12.0%) 등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직장인 평균연봉 4천만 원 돌파 역대도 백만 명

직장인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역대 연봉 근로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매일경제’가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4분기 국세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세전 기준 4,024만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3,828만원이던 평균 급여가 5.1%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20만 원으로 최근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서울(4,675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3,419만원)였다. 세종은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많아 평균 연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고액 연봉의 조선·중공업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울산이 지역별 1위를 차지해왔지만 세종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은 저소득 근로자들도 많아 평균 급여가 이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평균 급여 수준이 오르는 동시에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역대 연봉 근로자도 112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91만6,000명에서 22.6%나 급증한 것이다. 역대 연봉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35만6,943명)와 서울(34만2,475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4만7,49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그래픽/편집=매경/타운뉴스

“한국, 올해 무역 규모 세계 6위”

올해 한국의 무역 규모가 세계 6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8위였던 순위가 올해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무역 규모가 세계 6위에 등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지열 무역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수출 증가율 5위를 기록하며 수출은 2년 연속 6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세계 수출 순위도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수입도 세계 9위에서 8위로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의 교역 규모는 작년 세계 8위에서 두 계단 도약해 사상 최초 6위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무역이 올해 양적인 성장을 일궈내면서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선 후퇴했다.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적자를 기록 중이고,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 경신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구 회장은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해간다면 무역적자 개선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